

날 것 그대로의 아름다움 브루탈리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헝가리 출신 건축가 라즐로 토스의 삶을 다룬 영화 <브루탈리스트>는 이민자의 꿈과 현실, 예술과 사회의 충돌을 정교하면서도 강렬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촬영상·음악상을 수상했다. 영화의 제목 <브루탈리스트>는 건축 양식 브루탈리즘(Brutalism)에서 유래했다. 브루탈리즘은 '가공되지 않은 콘크리트'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béton brut에서 비롯된 용어로, 거칠지만 솔직한 미학을 추구하는 건축 사조다. 영화 속 라즐로가 구현하고자 했던 건축물과 그의 인생은 모두 이 브루탈리즘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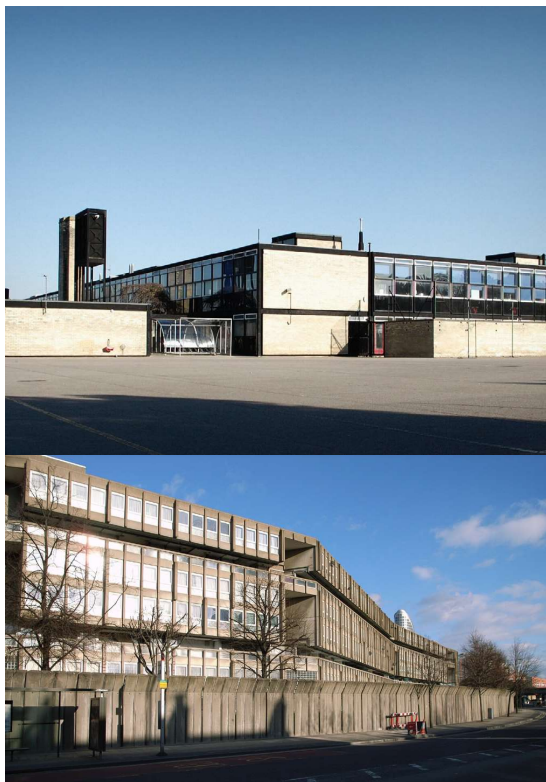




브루탈리즘의 역사

브루탈리즘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대적인 도시 재건과 공공시설 확충이 있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은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도시를 복구해야 했고, 그 해결책으로 단순하고 실용적인 건축이 주목받았다. 브루탈리즘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르 코르뷔지에의 ‘유니테 다비타시옹(Unité d'Habitation)’ 역시, 종전 직후 자원이 부족했던 프랑스의 현실을 반영해 콘크리트로 지어진 것이다.

유니테 다비타시옹



헌스탄톤 학교(위), 로빈 후드 가든(아래)

르 코르뷔지에가 브루탈리즘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브루탈리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스웨덴 건축가 한스 아스플룬트다. 그는 자신의 작품 ‘빌라 괴트(Villa Göth)’를 설명하며 이 용어를 사용했고, 이후 영국의 건축가 엘리슨·피터 스미스 부부가 이를 받아들여 브루탈리즘을 하나의 건축 운동으로 정립했다. 스미스 부부는 ‘헌스단톤 학교(Hunstan-ton School)’와 ‘로빈 후드 가든(Robin Hood Gardens)’등의 작품을 통해 화려함보다 기능과 구조의 정직함을 강조하며 ‘모두를 위한 건축’이라는 사회적 이상을 구현하고자 했다.

브루탈리즘의 재조명

1980년대까지 브루탈리즘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대학, 도서관, 정부 청사, 공공 주택 등에서 널리 사용되며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노출 콘크리트의 유지·보수가 어렵고, 거칠고 차가운 이미지를 준다는 특성 탓에 대중들의 거부감이 커지며 점차 쇠퇴했다.

최근 브루탈리즘은 독창적인 미학과 강렬한 인상 덕분에 건축뿐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 패션, 웹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날것의 미학’으로 재해석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오픈한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성수동 신사옥 ‘하우스 노웨어(Haus Nowhere)’는 브랜드 컬러에 맞추어 브루탈리즘 양식을 현대적으로 변주한 대표적인 사례다.



하우스 노웨어



브루탈리즘의 특징

1. 공간의 체계성과 모듈화

브루탈리즘 건물은 기능뿐 아니라 공간 구성의 명료함을 중시한다. 반복되는 모듈과 격자형 구조, 정형화된 내부 공간 배치는 단순하면서도 질서 있는 시각적 인상을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대형 건물에서도 내부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소크 생물학 연구소(위), 가이젤 도서관(아래)

2. 강렬한 볼륨과 육중한 형태

건물의 덩어리감과 볼륨감이 강조되며,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형물처럼 보이도록 설계된다. 이는 공간적 안정감과 동시에 시각적 압도감을 주어, 단순한 실용적 건축을 넘어 조형적 표현 기능을 수행한다.

3. 재료와 표면 처리의 솔직함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철골, 유리 등 다양한 원재료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설계된다. 또한, 표면 처리에서 거칠기를 살리거나, 연결부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은 재료의 물리적 성질과 구조적 원리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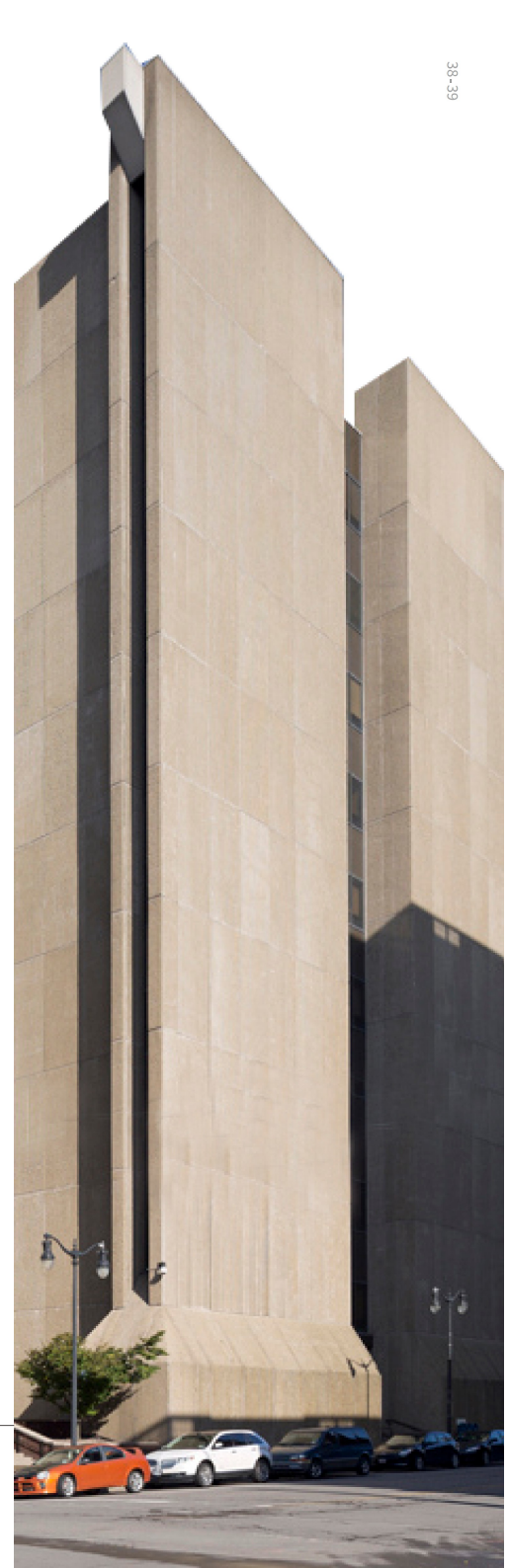
4. 자연광과 그림자 활용

브루탈리즘 건물은 외형이 단순하지만, 입체적인 돌출과 깊이를 활용해 자연광에 따른 그림자를 극대화한다. 건물의 거친 표면과 볼륨감이 햇빛과 어우러지면서, 낮과 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5.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주변 건물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보여주거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러한 대비는 보는 이로 하여금 건물의 힘과 구조적 위엄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한다.

버팔로 지방법원 청사





대표적인 브루탈리즘 건축물

바비칸 센터(Barbican Centre)

바비칸 센터는 약 4,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단지이자, 미술관, 콘서트홀, 도서관, 극장 등이 결합된 거대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공습으로 런던 중심부가 초토화된 뒤, 종전 후 도시 복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바비칸 지역을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개발하는 계획이 수립되면서 탄생했다.

건물은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해 강인하고 미래적인 느낌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실험적 디자인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울하고 냉랭한 느낌을 준다는 혹평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바비칸 센터는 런던 재건의 상징이자 브루탈리즘의 아이콘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건축학도들의 필수 방문지로 자리 잡았다.

보스턴 시청(Boston City Hall)

보스턴 시청은 콘크리트 질감을 강조한 외관과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한때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건물’로 불리기도 했다. 1962년, 보스턴 시 정부는 새로운 시청 건물을 위한 설계 공모전을 열었고, 콜롬비아 대학교 건축학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 제출한 설계안이 1등으로 선정되어 현재의 건물이 완성되었다.

기하학적 볼륨감과 강한 존재감을 지닌 이 건물은 공공 영역과 정부 건물 간의 연결을 강조하며,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는 브루탈리즘의 사회적 이상을 잘 보여준다.



라 투레트 수도원 (Sainte-Marie de La Tourette)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라 투레트 수도원은 브루탈리즘 양식이 종교 건물에도 적합함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수도원은 기도과 명상을 위한 공간이므로 화려함보다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구조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건물 전체가 노출 콘크리트로 지어졌으며, 장식적 요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르 코르뷔지에는 ‘빛이 건축을 완성한다’는 철학을 반영해, 수직과 수평으로 길게 뻗은 창문을 배치하여 자연광을 극대화했다. 덕분에 최소한의 조명만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밝기를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신비롭고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